

발 간 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국내학술지 발행지원에 힘입어 환경법 연구 제27권 제1호를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문제가 단순히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조건이라는 명제를 피부로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환경법학회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저명한 환경법 학자를 모시고 “동북아의 환경정책과 법제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6일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양환경, 대기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있어서 매우 유익한 학술대회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학회원들의 주옥같은 옥고를 모아서 환경법연구 제27권 제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김춘환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이종영, 석인선 교수님들이 주옥과 같은 옥고를 투고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환경법학회 회원들이 옥고를 투고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회지 심사과정에서 일부 게재가 유보된 원고가 있는데,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인 우리 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유보가 된 것이니 회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학기말의 바쁜 시간 중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경운 출판이사를 비롯하여, 투고논문의 심사를 해주신 편집위원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 6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박 수 혁